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 동아일보기 3관왕 석권 달성

단체전·개인복식·개인단식 모두 제패

총 6개 금메달 포함 총 11개 메달 획득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동아일보기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올 시즌 4개 대회에 출전해 전종별을 석권하는 기업을 토했다. 순천여고(학교장 이성민)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98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 출전해 여고부 단체전, 개인복식, 개인단식을 모두 제패했다. 특히, 올 시즌 앞선 3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했던 순천여고는 한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컵까지 들어 올리며 기쁨이 배가 됐다. 지난 1일, 김운진, 박빛나, 김하은(이상 3년), 김가은(2년), 신희선, 김여빈, 강주현(1년)이 출전한 여고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경북 명실상주클럽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순천여고는 결승에서 대전여고를 역시 2:0으로 누르며 올 시즌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7일 후 열린 개인전에서도 순천여고는 금빛 스트로크를 날렸다. 여고부 개인복식에 출전한 김운진-

박빛나(이상 3년)조는 결승에서 경북 조리과학고 김진아-문혜원 조를 4: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개인단식에서는 막내 신희선이 결승에서 명실상주클럽 김효정에게 4:3으로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여고는 올 시즌 4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해 매 대회마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전종별을 석권하며 올 시즌 총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순천여고 김현순 코치는 "올해 단체전 우승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이뤄내 너무나도 기쁘다"고 했다. 또한 "선수들이 훈련을 잘 따라왔고 이성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신민

철 감독님 등 학교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항상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한국 소프트테니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동아일보기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한 순천여고팀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도 해남에서 추계연맹전이 개최되는 만큼 홈에서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려 전남체육의 긍지를 높여줄길 응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여고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해남군에서 열리는 2020 전국 남녀 중고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 출전해 또다시 우승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왼쪽부터 신민철 감독, 김하은, 김운진, 신희선, 강주현, 김가은, 박빛나, 김여빈, 김현순 코치)

김민재·박지수, 벤투호 합류 불발...中팀 차출 거부

15일 멕시코·17일 카타르와 평가전

축구대표팀의 수비라인 김민재(베이징 귀안)와 박지수(광저우 에버그란테)가 유럽 원정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김민재, 박지수가 오스트리아에서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소집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체 선수는 발탁하지 않기로 했다. 벤투호는 오는 15일 멕시코, 17일 카타르와 평가전을 갖는다. 협회에 따르면, 베이징과 광저우 구단은 국가 이동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팀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근거로 차출을 거부했다. 이번에는 A매치 주간에 중국 슈퍼리그 챔피언결정전과 3~4위 결정전 때문에 전제된다. 특히 광저우는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장우와 비저 12일 열리는 2차전에서 우승을 가린다. 김진수(알 나스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합류가 무산됐고, 홍철(울산)도 부상으로 동행하지 못했다. 김민정기자

전남드래곤즈, 하나원큐 K리그 '그린 스타디움상'

전남드래곤즈가 최근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에서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전남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 2020 3차 클럽상 선정에서 K리그2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한 데 이어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공개한 '하나원큐 K리그 2020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하였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K리그 12개, K리그2 10개, 총 22개 구단 중 가장 그라운드 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기장에 주어지는 상으로, 전남드래곤즈는

창단 이래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축구전용구장은 POSCO 협력사인 (주)정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그라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주)정원 관계자는 "(주)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광양축구전용구장이 그린스타디움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 전남드래곤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도 전남 선수들이 홈 경기장에서 더욱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그라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학범호 수문장 송범근 "대표팀 사명감 가져야"



울림픽축구대표팀 골키퍼 송범근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김학범호의 수문장 송범근(전북)이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10개 월만의 국가대항전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23세 이하)은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 출전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입성했다. 13일(한국시간) 홈팀 이집트, 14일 브라질을 상대한다. K리그 전북 현대의 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을 이끈 골키퍼 송범근도 합류했다.

송범근은 올해 1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골문을 책임지며 우승과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따냈다. 송범근은 10일 협회를 통해 "1월 태국 대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이집트라는 먼 곳까지 오게 됐다"며 "오랜만에 선수들을 뵈는 기쁘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평가전에 대해 그는 "어떤 경기든 가슴에 국가대표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고 했다. 이어 "국가대항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에서도 좋은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온다고 하니 함께 뛰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많이 얻어갈 것이다"고 했다. 백승호(다름슈타트), 이승우(인트르아위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전성

훈(아우쿠스부르크), 김정민(비토리아), 김현우(이스트라)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합류했다. 김학범 감독은 도쿄올림픽 본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소집을 통해 유럽과 선수들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불러 확인할 기회"라며 "(이)승우는 그동안 경기를 못 뛰어 이번이 평가할 마지막 기회라서 선발했다. 기존 선수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범근은 "해외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과 발맞추고 같이 뛰어본 적이 많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우와 (백)승호 등 예전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함께 했던 선수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 기쁘다"며 "팬들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좋은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외부FA 없던 SK, 김원형 감독에 '취임 선물' 안길까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김원형 감독. (사진 = SK 와이번스 제공)

그간 외부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이 없었던 SK 와이번스가 김원형 신임 감독에 '취임 선물'을 안길까. 대개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면 구단이 외부 FA 영입을 위해 지갑을 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임 감독을 선임한 구단이 전력 강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SK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51승 1무 92패, 10개 구단 중 9위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지난 6월25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도중 쓰러진 염경엽 전 감독은 건강 문제로 긴 시간 자리를 비웠고, 결국 시즌 막바지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염 전 감독이 자리를 비운 동안 감독대행을 맡았던 박경완 전 수석코치도 시즌을 마친 후 스스로 팀을 떠났다. SK는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원형 감독을 선임했다. 두산 투수코치로 일하던 김원형 감독은 두산이 포스트시즌 중임에도 배려를 해준 덕분에 9일 마무리 훈련부터 SK에 합류했다. SK는 그간 내부 육성에 집중하면서 외부 FA를 영입에 인색했고, 집토끼를 놀려앉히는데만 지갑을 열었다.

SK가 외부 FA를 영입한 것은 2011년 말 조인성, 임경완이 마지막이다. 이후 8년 동안 외부 FA를 눈여겨보면서 2019년 정규리그 우승 문턱까지 갔던 SK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올 시즌 외국인 투수 닉 킹엄의 부상과 리카르도 핀토의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SK는 발 빠르게 움직여 2021시즌 외국인 투수진을 윌버 폰트, 아티 르위키로 꾸렸다. 김정민, 박민호 등이 성장세를 보인 불펜도 나쁜 편이 아니다. 야수 쪽에서 외야인 이 풍부하다. 하지만 내야 쪽에서는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SK는 올 시즌을 앞두고 주전 2루수와 유격수를 각각 김창평, 정현으로 낙점했지만, 이들의 부상과 부진 탓에 계획이 어그러졌다. 시즌 내내 SK 2루수와 유격수 자리의 주인공은 바뀌었다. 2루수 자리에는 최준우와 최항이 거쳐갔고, 시즌 막판에는 김성현이 2루를 맡았다. 김성현은 정현의 극심한 타격 부진 속에 유격수로 뛰다가 박성현이 제대하면서 유격수를 맡아 2루로 자리를 옮겼다. 2019시즌을 마치고도 2루수, 유격

수가 약점으로 지적됐던 SK는 김선빈(KIA 타이거즈), 안치홍(롯데 자이언츠) 등 걸출한 내야 자원이 FA 시장에 나왔음에도 적극적인 영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부 육성으로 약점을 매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다. SK는 감독 뿐 아니라 대표이사도 단장도 모두 바꿨다. 지난달 14일 민경삼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류선규 신임 단장이 부임했다. 올해 코치 가운데 10명과 결별하며 코치진도 싹물갈이를 했다. 김민정기자

이용규, 1년 최대 1억5천만원 '키움행'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대표이사 하승)가 한화 이글스 출신의 외야수 이용규(35)를 영입했다. 계약조건은 연봉 1억원, 옵션 최대 5000만원 등 총액 1억5000만원이다. 2004년 LG 트윈스로부터 2차 2라운드 지명 받은 이용규는, LG를

거쳐 KIA 타이거즈와 한화에서 활약했다. 이용규는 프로 17년 동안 1군 통산 1692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1(6152타수 1850안타), 363도루 483타점 1038득점을 기록했다. 이용규는 이번 시즌에도 정규리그 12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6, 32타점

60득점 17도루를 기록하며 꾸준한 기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는 팀 리빌딩을 위해 최근 이용규를 방출했다. 결국 이용규를 선택한 구단은 키움이었다. 이용규는 "김치현 단장님이 직접 연락해 주셔서 감사했다. 팀에서 바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단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히어로즈는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팀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치현 단장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 열정을 가진 선수와 함께 해서 매우 기쁘다"며 "연령대가 낮은 선수단에 실력있는 베테랑 선수의 합류로 팀스와 선수단 분위기가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장하나, 女골프 25위→19위 도약

장하나(28)가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9위에 올랐다. 장 하나는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25위에서 19위로 상승했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K 네트웍스·서울경제 클래식에서 우승한 장 하나는 8일 끝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도 가을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지난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에서 우승한 신지에는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시즌 2승을 거둔 안나린(24)은 77위로 뛰어 올랐다. 김민정기자